



다큐메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 이창재 감독 “인터뷰 통해 ‘인간 노무현’ 실감”

문제인 대통령 등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 39명 증언 담아

25일 극장 개봉... 차후 인터뷰 기록 책으로 출간 계획도

“화를 내는데 그 밑에 슬픔이 든 게 보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영구 중독돼서 못 빠져나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기 가슴을 먼저 열어. 그래서 사람들이 매료당해요.” (선거전문가 배갑상)
“돈 없이 정치할 순 없나? 이게 나한테 가장 속제다. 돈 안 드는 정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사갑원 노무현 대선캠프 참모)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를 아주 외롭게 두었다. 이게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문제인 대통령)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지지율 2%로 시작해 대선후보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을 되짚는 다큐메터리다.

어렵게 수집한 당시 경선 자료 화면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39명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문제인 대통령, 안희정 충남지사, 유시민 작가 등 정치적 동지부터 변호사 노무현을 정찰했던 이화춘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요원, 변호사 시절 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노수현 씨, 부림사건 고문 피해자 고호석 씨, 배우 명계남을 비롯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인간 노무현’에 대해 증언한다.

변호사 시절 노무현을 정찰했던 이화춘 씨는 노무현 변호사가 시위대로 끌려간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구해줬던 일화에 비롯해 적대적 관계로 만났지만 깊은 우정을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변호사 시절 운전기사로 일했던 노수현 씨는 “변호사님이 매일 청원경찰에게 15도 인사를 했다. 갖 결혼한 우리 부부를 뒤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해 드라이브시켜주기도 했다”며 아랫사람을 배려했던 인간 노무현의 품성을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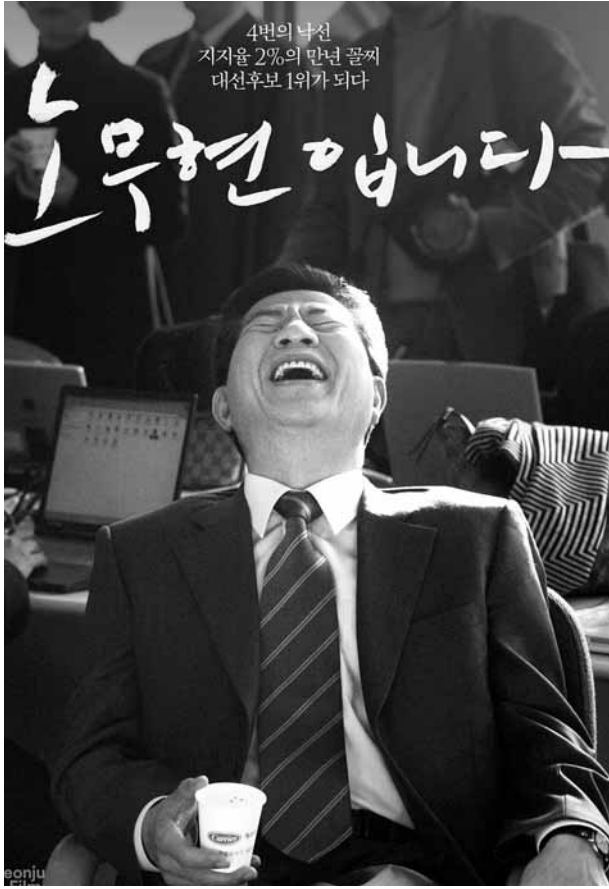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 응한 문제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어내려가며 “제가 이분의 글 쓰는 스타일은 아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간결하게 쓰지 않는다. 머릿속에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를 아주 외롭게 두었다. 이게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라며 말을 잊지 못한다.

이창재 감독은 16일 시사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문제인 대통령에 대해 “말씀을 건조하게 하신다. 총계 말하면 그렇고 미디어를 잘 모른다. 당신에 관해 물어봐도 당신은 자꾸 빠져있고 노무현에 대한 설명만 하셨다”며 “결론할 때 문인 인터뷰 내내 당신 자신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영화 말미에 나오는 인터뷰 장면은 녹화를 마친 뒤 주차장까지 갔다가 돌아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녹화한 것”이라며 “말씀을 하시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한쪽 구석으로 가서 손수건으로 닦고 오시더라. 최소한 쇼맨십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109분의 러닝 타임 중 인터뷰가 45분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감독이 영화를 위해 인터뷰한 인물은 총 72명, 분량은 1만2000여 분에 달했다. 제작진은 이 1만2천여 분의 인터뷰 기록을 잘 다듬어 도서로 출간할 계획이며, 건립 예정인 노무현 기념관에 인터뷰 영상 전체를 사료로 영구 기증할 계획이다.

일명 ‘노빠’도 아니었고 참여정부의 정책 기초 전반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창재 감독은 이 영화는 “여전히 애도 혹은 추모를 멈출 수 없는 대통령, 아닌 인간의 품성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기획 단계에서 40여 권의 노무현 관련 도서와 수많은 영상을 보고 그를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식 인터뷰 촬영 개시와 함께 모든 게 무너졌다”며 “알면 알수록 규정할 수 없는 깊고 넓은 품성의 ‘노무현’이라는 콘셉트를 인터뷰를 통해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나에게 정치인 노무현은 잘 안 보였고 인간 노무현만 보였던 것 같다”며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인간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5월23일) 이틀 뒤인 25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연합뉴스

광주MBC 5·18 특집 다큐 ‘그의 이름은’ ‘계엄군 집단 발포’ 백악관 메모 공개

광주MBC는 21일 밤 11시15분 5·18 특집 다큐메터리 ‘그의 이름은’(기획 한신구·연출 김인정·김철원)을 방송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의 수기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메모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후 당시 백악관에서 열린 관료들의 대책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돼 있다.

취재진은 당시 발포와 관련해 국내외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했는데 국내에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발포의 당사자인 11공수부대 군인들을 만났고, 미국에서는 5.18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만났다.

특히 5.18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고 이후 한국인은 들쥐와 같다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던 존 위컴과의 인터뷰



를 성사시켰다. (사진) 또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발포 당사자인 11공수부대 군인들을 만났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의 1980년 5월의 행적과 1987년 6월항쟁 때 당시 전두환 정권 때 작성된 발포명령이 언급된 문서, 국군통합병원 진료부장의 증언 등도 방송된다. 한편 내레이션은 배우 권해효 씨가 맡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즌 2로 돌아온 ‘우리들의 공교시’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 출연... 배명고 야구동아리 멘토

21일 첫 방영

KBS 1TV의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들의 공교시’가 ‘프로야구의 전설’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과 함께 시즌2로 돌아온다.

KBS는 17일 “지난해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이 멘토로 활약했던 ‘우리들의 공교시’가 고교 농구클럽 성장기였다면 시즌2는 야구클럽 성장기라 될 것”이라며 “타이틀도 ‘야구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뜻의 ‘야자타임’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새 멘토인 이만수 전 감독은 프로야구 1호 안타와 타점, 홈런의 주인공으로 SK와 이번스 감독을 지낸 뒤 최근에는 라오스 야구 보급 등 재능 기부에 힘쓰고 있다.

이만수 멘토의 지도를 받게 될 행운의 주인공은 서울 배명고 야구동아리 ‘하늘로 쳐’다. 배명고는 많은 야구 스타를 배출한 명문이지만 이 동아리는 최근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어 이만수 멘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매주 오후 1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정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가정의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5.18특집다큐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0 수목드라마 (군주)(재)	10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45 SBS 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감성투 고맙습니다 (재)	00 일일드라마 (아름다운 여자) (재)	50 텔레노스타	00 애니갤러리 30 교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이웃집 찰스 (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물상계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5 사람과 사람들 (재)	50 KBS 재난방송센터		55 닥터 365
2	4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00 뉴스브리핑
3	05 가정의달 특선 명견만리 -동물, 인구절벽 3부작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지연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령전문록 남도에 살리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아름다운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TV 인사이트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고령화 기획 2부작)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군주)	00 드라마 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가정의달 특선 3부작 초저출산시대, 아이가 희망이다	10 해피 투게더	10 2017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뫼트네 전기 이야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덩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딱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사이좋은 고부의 숨겨진 비밀)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피레겐과류 주역들과 김지달갈 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똥다 속회 할매)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아버지와 왕기, 미안마)
14:30 호기심나라 오기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명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딱(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남미연가 알티플라노, 고원기행 -골의 시작 아타카마사막) 21:30 한국기행 (무등도원 일성기-길을 찾아서)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바이오 인공장기, 생명 영장의 열쇠인가?)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음 4월 23일 乙巳)
子 48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하라. 60년생 다수의 어증간 함 보다는 소수의 확실함이 더 낫다. 72년생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길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 84년생 없었었을 때에야 귀중할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21	午 42년생 한눈에 보아도 쉽게 드러나리라. 54년생 조금 씩 정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환경이다. 66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78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90년생 이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7, 69
丑 49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61년생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73년생 외관에 치중하다 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85년생 기우뚱거리다가 바로 서는 위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4, 44	未 43년생 비능률적이다. 55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 가는 것이 낫다. 67년생 세분화되면서 점점 흥미를 더하게 되리라. 79년생 불만하면 빨리 개선하라. 91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행운의 숫자 : 99, 92
寅 50년생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부적인 효율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62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74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86년생 남이 들을지도 모르니 조용히 얘기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4, 68	申 44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56년생 어려움 있으나 곧 해결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 68년생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80년생 흡족한 결과로 인해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66, 49
卯 51년생 사세를 진작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63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75년생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할 것까지는 없다. 87년생 절호의 기회란 결코 흔치 않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5, 48	酉 45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57년생 강력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보겠다. 69년생 이른 아침부터 빛날 때까지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81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5, 59
辰 52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계속 되어야 한다. 64년생 돈 쓸 일은 늘어나지만 들어 올 곳은 한정적이다. 76년생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88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튈지 모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8, 38	戌 46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라. 58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70년생 거급적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냄이 백년 내를 것이다. 82년생 별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26, 70
巳 53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도 보인다. 65년생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도록 하자. 77년생 적절 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89년생 막연해 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행운의 숫자 : 03, 75	亥 47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59년생 단순해야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71년생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와 함께해야 하는 부담이 보인다. 83년생 흔적만 보아도 가히 집적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29, 52